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4. 4. 2.(화) 11:00 < 4.3.(수) 조간 > 배포 2024. 4. 2.(화)

4월 3일부터 스마트팜·농기계 무역보험 우대

- 단기수출보험 가입한도 2배, 보험료 20% 할인, 보상한도 1.5배 우대
- 산업부·농식품부 간 긴밀한 부처 협업을 통해 수출 확대 총력 지원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)와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)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농기계(트랙터·로우더 등 HS코드 22개)와 스마트팜 설비(관수시스템, 센서 등 HS코드 169개)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4월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. 우리 농기계는 트랙터를 중심으로 북미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으며, 스마트팜의 경우 식량안보에 민감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시장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.

* 수출액 : △스마트팜 `22 460만불, `23 1.43억불 수주, △농기계 `20 10.3억불 → `23 15.3억불
* 스마트농업 세계시장 전망(Marketsandmarkets Research, `23) : (`22) 162억불 → (`28) 254억불(年 9.4%)

스마트팜·농기계 분야 수출 기업은 4월 3일부터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가입 시 우대를 적용받게 된다. 단기수출보험은 우리기업이 수출물품 선적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으로서, 스마트팜·농기계 분야 수출 기업은 보험료 20% 할인, 가입한도 최대 2배, 보상한도 최대 1.5배 등의 우대를 적용받게 된다.

산업부와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*부터 스마트팜·농기계 수출 확대를 위해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 지정, 중동지역 셔틀경제협력단 파견 등 협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, 금번 무역보험 우대도 이러한 부처 협업의 일환이다.

* 「제3차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」에 '스마트팜 수출 확대 방안' 발표('23.6.27)

조익노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"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해 농식품부를 시작으로 해수부, 문체부, 복지부 등 유관부처와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올해 무역보험 255조 원, 마케팅 1조 원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우리 수출기업을 총력 지원해 나갈 계획"이라고 밝혔다.

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"스마트팜과 농기계는 농식품 전후방 산업 수출의 핵심 분야로 앞으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유망 품목이다"며, "이번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수출기업의 무역 위험 경감과 무역보험 활용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"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	책임자	과 장	이창훈 (044-203-4040)
		담당자	사무관	윤인식 (044-203-4049)
	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	책임자	과 장	박은영 (044-201-2471)
		담당자	사무관	한우리 (044-201-2472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